



장수읍 주민자치협회 한동근 위원장, 성금 기탁

장수군 장수읍 주민자치협회 한동근 위원장은 지난 1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돋는 데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일백만원을 장수읍에 전달했다.

한동근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장수읍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성금 기탁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돋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읍에 전달된 성금은 장수읍 관내 어려운 이웃,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여 주시는 주민자치 협회 한동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탁자의 소중한 뜻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을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소방서, “기구마다 주택용 소방시설 필수”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 19일 오전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에서 음식물 단화가 발생했으나 단독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U-안심콜시스템 작동으로 조기발견되어 대형사고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음식물 조리중 냄비과열에 따른 연기 발생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였고 동시에 U-안심콜 시스템이 119로 연결되어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 주택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소리를 들은 거주자는 다행히 다른 피해 없이 조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U-안심콜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며 “화재초기의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구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자봉센터,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오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국가적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온기나눔’ 및 ‘함께 온기 더하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센터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납묘 500여개를 전달하는 한편 군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케이크, 떡국, 김치 등을 제작하여 납묘를 받은 아동들이 작성한 연하장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며, 남원역에서 설날 귀성객 맞이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은주 시민소통실장은 “이번 캠페인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우리 사회의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견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김제 망해사 일원 국가명승 지정 염원 타종식

“역사 · 경관 · 생태학적 가치 지닌 망해사, 새만금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정립 최선”

역사와 경관, 생태학적 가치를 모두 지닌 김제 망해사가 명승지정이 되기를 염원하는 행사가 열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민·관이 함께 모여 ‘김제 망해사 일원’이 국가명승으로 지정받기를 염원하는 타종식을 김제 망해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종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이찬준 김제부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지역구 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망해사는 이를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으로 642년 백제 외자왕 때 부설거사가 세운 것을 당나라 승려 중도법사가 중창했으며, 조선 선조 때의 이름 난 선승 진북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며 낙서전과 팽나무를 심었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러한 망해사는 예로부터 조선문학의 최정점을 이뤘던 고산 윤선도가 망해사의 비경을 바라보며 망해사라는 시조를 남길 정도로 명승지로 인식됐던 곳이다.

‘낙조’의 전국적인 명소로 유명한 망해사가 국가 명승지로 특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새만금의 중심지이자 만경강 하구에 위치한 망해사의 생태학적 가치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망해사 앞 바다가 담수화되면서 멸종위기 철새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망해사 일원에 서식하는 수질정화식물 등이 새만금 환경문제에 있어 만경강 유입부에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허파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연구기관의 통론이다.

김제시민들도 망해사는 바다에 대한 기억이자 지역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길 시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날 망해사 법종을 타종한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타종식은 전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김제 망해사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역사와 경관,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망해사가 새만금과의 조화로운 방향으로 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상전면 지사협, 올해 첫 정기회의 개최

진안군 상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순, 박종석)는 지난 19일 면 주민자방방에서 2024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3년의 활동 결과 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기존의 사랑 가득 밟반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생활 찾아주기 사업,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선별 꾸러미 사업 등을 계획하고, 전년도 상전면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던 어르신 문화산책(영화관람)사업을 올 해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박종석 민간위원장은 “상전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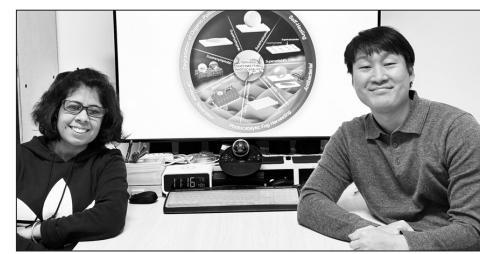


장수군의용소방대연합회,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꾸준히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함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장수군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윤석빈, 송영자)에서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윤석빈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대 유승화 교수팀, 수질오염 해결 광촉매 연구 리뷰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라그나마이 모하파트라 연구교수(양자시스템 공학과)와 유승화 교수(양자시스템공학과, JBNU-KIST 산학융합학과)가 수질오염을 해결하는 특정 광촉매 연구 리뷰논문을 화학·공학 분야 저명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논문은 수질오염이라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삼상 초친수(triphase superwetting) 광촉매’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혁신적인 삼상(고체-액체-공기) 광촉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환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용방법을 제시했다. 삼상 계면에서 광촉매적 반응을 유도하는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면서 삼상 초친수 광촉매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정리했다.

기존의 광촉매가 산소 농도가 낮고 확산 속도가 느린 고체-액체 계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삼상 광촉매는 빠르고 효율적인 유기 오염물 제거효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증정지사 010-9088-6874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65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010-272-9417
순천지사 253-6844
010-6789-0038
군산지사 053-8845-9935
의산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 공덕면 지사협 · 복지기동대,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 위원장 정민성)와 복지기동대(대장 박연무)가 지난 19일 공덕면 2층 회의실에서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식품꾸러미지원사업, △복지기동대 봉사활동 정산 및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및 착한 가게 홍보, △신규사업 발굴 등 공덕면 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

특히 이날 기존 사업을 더해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특화 사업을 발굴고자 실시됐으며 지역의 학생들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소외되기 쉬운 명절 등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